



제153회 발명교실

12월 14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53회 발명교실이 지난 12월 14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한국산업기술본부 제니센엔지니어링 연구소 김치경 사장의 성공사례 발표와 이소남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김은숙 記>

경혈 지압구

한국산업기술본부 제니센엔지니어링 연구소 대표 김치경

갈수록 발전하는 우리 의학과 의료기에 더욱 새로운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좀 더 나은 기술을 연구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알고 집중적으로 혈과 기의 원리를 연구하여 경혈지압구를 발명하게 되었다.

자기의 초점 방사를 위하여 N극과 S극의 연구자석을 장착하여 인체전류를 향상시키며 자율면역력 및 혈과 혈관의 청정 효과를 가져오도록 고안하였다.

자기의 자장형성으로 음이온을 공급할 수 있으나 음이온이

의학이라는 것이 발전하면 할수록 끝이 없음을 알 것이다.

1977년 1월에 한국산업기술 본부를 설립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관리업무, 효율향상등의 제조업체 관리혁신의 용역을 해왔다.

지난 1994년에 부인이 갑작스런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음을





없는 도심지등에서도 인체에 음이온이 공급되어지도록 음이온 발생물질을 축적하였고 상온에서 강력하게 방사되는 6 μ ~14 μ 의 원적외선 바이오 세라믹을 내장시켜 측면과 상부로는 원적외선 파장을 차단시켜 인체에 접촉시키므로써 결론적으로 하부뿐만 방사되게 구성한 제품이다.

다른 형태로는 인체에 기혈유통을 신속하게 되도록 끝을 지압용 금속으로 장착하였고 혈액 중의 지방, 혈전약성, 콜레스테롤, 울혈, 사혈독성 등을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효능과 사용 및 보관이 간편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기이다.

단순히 피부에 접촉시켜 질병이나 통증, 혹은 숨어있는 이상 증상까지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서 정확한 자기진단을 할 수 있고 반응이 나타나는 지점마다 30초~1분 정도씩 접촉만 시키면 질병이나 통증이 쉽게 치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위적인 전기전자 장치가 없으므로 유해 전자파가 없도록 하였고 소모부품이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발명가 김씨는 경혈지압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의료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기적을 꼭 살려야겠다는 신념 하나로 동·서양의 의학서적을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 발명품의 완성에 이르게 되었다.

임상시험으로 사용해 본 결과, 1년간의 치료로 거의 정상까지 치료되어 현재는 완전한 제품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간단한 경혈 지압구로 고안되었던 것이 효능, 효과, 안정성등을 보완하여 완벽한 치료기기로 해외수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지난 11월에 독일국제발명전에서 의료기 부문에서 금상을 획득하게 되었고, 내년초 국내 치료기기로 정식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미국의 FDA와 유럽 지역(EU)의 EC 허가도 준비중에 있다.

경혈지압구 즉, 제니센 터치 포인터는 가볍고 간편하게 가정과 직장은 물론 여행중에 휴대하기 쉽게 하였으며 접촉 포인터는 순금 24K로 피막되어 생체 반응이 잘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내년도에 국내외의 치료기기 정식허가를 획득하면 본 제품이 전세계 인류건강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국내보다 수출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독일, 이태리, 중국, 홍콩, 러시아, 일본 등에 적극적인 수출상담이 진행중에 있음에 따라 더욱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촉진시켜 의료기기 분야의 수출업체도 신장시켜 작으나마 국가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발특9612**